

부산시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의식 분석

김대식[†] · 이춘우

(부경대학교)

The Analysis of Understanding of the U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in Busan

Dae-Sik KIM[†], Chun-Woo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y 4, 2005 / Accepted May 25, 2005)

Abstract

Ocean resources have a very important rol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eople's leisure activities in a limited country, so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a source of supply to satisfy the demands as time goes on.

There are various and far-reaching approaches to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However, studies to present the over-all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y for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have been short; especially the studies which have been dealing with Busan were verified to be very short relatively.

As a result of survey, both officials in charge and residents in fishing villages have an enough understanding of what problems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have and it's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spreading effects. In the part of the policy of developing fishing ports, officials answered that insufficient synthetic estimation was main problem in developing the fishing ports, while residents had a high recognition that local fishing ports and small scale fishing ports have had poor progress relatively.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about the spreading effects of developing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they had affirmative opinions rather than negative ones without exemp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a right direction to develop the existing fishing ports as well as new fishing ones to the multi-functional synthetic fishing ports. The specialized development should be made so that the special quality of coastal resources, which fishing villages have, will be made the best use of.

Key words : Fishing villages, Fishing ports, Problems of development, Spreading effects of developmen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 서론

어촌은 예부터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정박, 계류, 어획물의 양륙 등 어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 Corresponding author : 051-888-3263, dskim@metro.busan.kr

중심 근거지로서 어민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연안어장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물의 생산은 정체상태이며 국제 수산 질서 또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따라서 수산업을 수산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1차산업에서 벗어나 어항을 비롯하여 어촌, 어장 자체를 소득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어항개발은 방과제, 물양장 등 수산업 위주의 기본시설 개발에만 그쳐 어항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신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협약 등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촌어항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로 간접지원을 통한 어촌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계획의 연속성과 총체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어촌어항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개발의 잠재성이 어느 도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개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 수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산업의 주체인 어업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어촌어항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부산시민(어촌주민)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의 의견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부산시의 어촌어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조사 시점인 2004년으로 한다. 둘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어촌주민 및 해양수산관련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어촌어항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분석이 포함된다. 넷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지역의 어촌어항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이론적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개념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둘째, 설문항목의 도출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직접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이론적 검토와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직접면접을 바탕으로 어촌주민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조사를 실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어촌·어항의 개념 및 기능

어촌은 일반적으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들로 구성된 바닷가의 촌락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바다 그리고 바다와 연결된 육역에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촌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어촌이라 칭할 수 있는 촌락은 1,800여개의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는 약 4,000여개의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의 기능을 보면 어업이라는 1차산업의 경제적 생산기능,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기능,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문화기능,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기능, 수산물을 이용한 유통 및 가공 등 산업기능,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바다이용

기능, 해양자원의 보전기능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항이란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를 말한다. 어항법상 어항은 전국연안 또는 도서의 항포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어업근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001년 9월에 개정된 현행 어항법에 의한 법정 어항은 국가어항(과거 1·3종어항), 지방어항(과거 2종어항) 및 어촌정주어항(과거 소규모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어항종류의 구분기준은 어항의 이용범위, 개발 및 관리자에 따라 구분된다.

<표 1> 어항의 종류 및 관리청

항종	항수	이용 범위	관리청
계	797		
국가어항	105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어항	319	-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	시·도지사
어촌정주어항	373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 해양수산부, 「어항편람」, 2003.

부산에는 총 51개의 어항이 있으며 이중 국가어항은 2개(다대포항, 대변항)로 전체 국가어항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어항은 14개로 전국 319개에 비해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소규모어항은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35개의 어항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어항은 어항법의 기능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고려해볼 때 어선정박·계류, 어획물양륙, 선수품 보급 등 어업활동 지원기능, 수산물유통 및 가공기능, 해상교통 및 물류기능, 해양관광 및 문화기능 등이 있다. 어항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재해로부터 어선 등 어업인의

재산과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어항의 전통적 기능 외에 최근 들어서는 어촌관광과 해상교통 및 물류기지로서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표 2> 어항의 기능

구분	내용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수산물 유통기지	○ 하역 및 시장 거래 ○ 소비지등으로 출하하는 수송터미널 ○ 수산가공업 기지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으로서의 역할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 어업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 ○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 바다문화 승계 및 바다체험 학습 장소

자료 : 해양수산부, 「어항편람」, 2003.

2. 선행연구 고찰

어촌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었으며 크게 어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어촌시설의 개발 및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어촌의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교통수단의 발달 등과 다양한 여가문화가 결합하면서 기존의 어촌지역의 기능 변화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재천(1993) 백선희(1997), 배재흠(1997), 송경연(2002)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재천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어촌의 기능변화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한계점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문헌연구가 대부분이다.

어촌시설의 개발 및 정비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어항을 중심으로 어항의 기능 및 개발유형, 성장요인에 관한 김성귀(1999), 손정식(1999), 오창택·하주룡(1999), 손정식·오창택(2001)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어항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의 만족요인과 상대적 중요성 요인, 그리고 어항만족과 구전의도 및 정주의도와 관계에 대해서는 오창택(2000), 손정식·오창택(2002), 하현철(2002), 신승식 외(2003), 김종섭(2003)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촌시설 개발 및 정비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어항시설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지역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을 사례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어항개발에 있어서 만족수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고찰 결과, 대부분의 어촌·어항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특정지역의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촌·어항개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어항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과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통해 향후 부산시의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설문지의 설계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제기된 문제들을 설문조

사를 통하여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으로 주로 폐쇄형(closed-ended) 질문을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어촌 및 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발방향에 관한 문항, 어촌·어항개발로 지역에 기대되는 파급효과 문항, 어촌·어항개발의 바람직한 기능에 관한 문항,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의 수집

관련 공무원 등의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청과 구·군의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수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촌주민의 의견조사는 부산시 어촌·어항 중 인지도가 높고,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어촌·어항의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촌주민의 경우에는 부산지역내 어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3개 권역 14개 어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부권의 경우 칠암, 이동, 두호, 대변항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부권의 경우 다대, 암남, 하리, 민락, 미포, 청사포, 송정항을 선정하였으며, 서부권의 경우 천성, 대항, 신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해당지역의 어촌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스스로가 직접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11월 18일에서 11월 30일까지였다. 관련 공무원 등의 경우 총 28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7부를 회수하여 91.5%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24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어촌주민의 경우 총 392부를 배부하여 341부가 회수되었으나(87.0%), 설문분석이 부적절한 설문을 제외한 311부의 유효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설문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의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비슷한 값을 얻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요 변수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측정항목만을 선별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사용한다. 즉 신뢰성이란 측정된 결과치의 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예측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신뢰성 측정방법에는 반복측정법(test-retest reliability), 대안형 검사법(alternative form reliability), 반분법(spilt-half reliability), 내적일치도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에 사용된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 α)은 문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설문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 는 상관관계로 해석되므로 그 범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보통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전체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은 항목제거시 신뢰도 계수(Alpha if Item Deleted)를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 개발방향, 파급효과 그리고 어촌·어항개발시 고려할 주요기능, 고려사항의 5개 영역, 4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각 항목의 신뢰도 분석을 살펴본 결과,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 0.7410, 어촌·어항개발정책의 개발방향 0.8947, 어촌·어항개발정책의 파급효과 0.8058, 어촌·어항개발시 고려할 주요기능 0.8662,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0.871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내적일관성 판정 기준인 0.60 보다 높게 나타나 설문항목의 변수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설문항목이 대부분 기본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발방향 신뢰도 검증

변 수	신뢰도 계수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	.7410
어촌·어항개발정책의 개발방향	.8947
어촌·어항개발정책의 파급효과	.8058
어촌·어항개발시 고려할 주요기능	.8662
어촌·어항개발정책수립시 고려사항	.8714

2.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촌개발정책의 문제점 4개 항목과 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 3개 항목에 대해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개발이 부진하다는 응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공무원 등의 경우에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어항의 분리개발(.001), 어항개발종합평가부족(.000)의 항목은 $p < .01$ 의 수준에서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중복개발문제(.019), 어촌개발시책부족(.014)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차이분석

구 분		공무원 등	어촌 주민	t	P
어 촌	어촌어항 분리개발	2.22	2.47	-3.250	.001*
	생산기반투자집중	2.80	2.80	-.102	.919
	어촌중복개발문제	2.66	2.84	-2.352	.019**
	어촌개발시책부족	2.26	2.45	-2.457	.014**
전체		2.47	2.64	-2.922	.004*
어 항	지방·소규모어항 개발부진	2.14	2.12	.422	.673
	기본시설위주어항 개발	2.28	2.41	-1.905	.057
	어항개발종합평가 부족	2.13	2.38	-3.687	.000*
	전체	2.18	2.30	-2.186	.029**

주 1) P는 유의수준을 나타냄(*P < .01 **P < .05)

2) 1(매우그렇다)~5(전혀그렇지 않다)

이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결과라 분석할 수 있으며, 어촌주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책의 부족으로 인한 어촌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3. 어촌·어항개발정책의 개발방향

어촌개발의 방향에 대한 3개 문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어촌의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어촌개발정책 수립시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어항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은 어항기능 다양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어촌주민은 어항개발투자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어항기능 다양화, 어항개발기준 및 개발계획조정, 어항개발 평가방법 개선의 5개 항목이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등이 어촌주민보다 어촌어항개발정책의 방향에 관한 각 항목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촌·어항개발정책의 개발방향에 대한 차이분석

구 분		공무원 등	어촌 주민	t	P
어 촌	지역특성고려 종합개발	1.62	1.86	-3.777	.000*
	정주기반구축	2.02	2.17	-2.331	.020**
	어촌관광활성화	1.89	2.15	-3.401	.001*
	전체	1.84	2.06	-3.840	.000*
어 항	어항개발인식전환	1.96	2.12	-2.401	.017**
	어항개발투자확대	1.93	2.08	-2.028	.043**
	어항기능 다양화	1.90	2.10	-2.877	.004*
	어항개발기준 및 개발계획조정	2.02	2.27	-3.656	.000*
	어항개발 평가방법 개선	2.10	2.33	-3.412	.001*
	전체	1.98	2.17	-3.669	.000*

주 1) P는 유의수준을 나타냄(*P < .01 **P < .05)

2) 1(매우 필요하다)~5(전혀 필요하지 않다)

4. 어촌·어항개발의 파급효과

어촌어항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게 긍정적 파급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 모두에서 지역민의 소득창출이 기대된다는 문항의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묻는 항목의 경우 공무원 등은 지역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경관 훼손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에 어촌주민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증가와 자연환경·경관 훼손을 부정적 파급효과 중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p<.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문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이 있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도시민 여가공간제공, 지역민 소득창출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등이 어촌주민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파급효과의 경우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증가에서는 p<.05 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어촌주민의 평균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연환경·경관훼손, 지역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증가에 대해서는 p<.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공무원 등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표 6> 어촌·어항개발의 파급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공무원 등	어촌주민	t	P	
긍정적	지역간 균형개발촉진	2.05	2.25	-3.196	.001*
	도시민 여가공간제공	2.08	2.52	-6.062	.000*
	지역민 소득창출	1.98	2.20	-3.183	.002*
	지역민 고용창출	2.28	2.38	-1.304	.193
	지역민 생활의 질 향상	2.17	2.30	-1.740	.082
	전체	2.11	2.33	-3.899	.000*
부정적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증가	3.01	2.80	2.374	.018**
	범죄발생증가	3.32	3.17	1.700	.090
	자연환경·경관 훼손	2.54	2.80	-3.021	.003*
	지역 생태계 파괴	2.53	2.83	-3.207	.001*
	환경오염증가	2.57	2.84	-2.798	.005*
	전체	2.79	2.88	-1.242	.215

주 1) P는 유의수준을 나타냄(*P < .01 **P < .05)

2) 1(매우그렇다)~5(전혀그렇지 않다)

5. 어촌·어항개발시 고려할 주요기능

어촌개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어촌의 기능에 대한 문항에서는 공무원 등 2.11, 어촌주민 2.21로 두 집단 모두 평균값이 낮아 긍정적인 응

답이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생산기능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항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도 또한 두 집단 모두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업활동지원기지로서의 기능과 수산물 유통기지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촌·어항개발의 주요기능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어촌의 기능과 관련된 문항 중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바다이용기능, 해양자원보전기능이었으며 공무원 등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항의 기능에서는 p<.01 수준에서 어업활동지원기지, 도시민 휴식공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어촌·어항개발의 주요기능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공무원 등	어촌주민	t	P	
어촌	경제적 생산기능	1.88	1.82	1.067	.287
	주민생활기능	2.03	2.03	-.006	.995
	어촌문화기능	2.27	2.35	-1.365	.173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기능	2.34	2.45	-1.531	.126
	유통·가공 등 산업기능	2.32	2.28	.582	.561
	바다의 다양한 이용기능	2.06	2.28	-3.059	.002*
	해양자원보전기능	1.95	2.31	-5.135	.000*
	전체	2.11	2.21	-2.200	.028*
	어업활동지원기지	1.93	2.14	-2.883	.004*
어항	수산물유통기지	2.06	2.12	-.967	.334
	지역사회기반시설로서의 역할	2.21	2.30	-1.332	.183
	도시민 휴식공간	2.26	2.50	-3.171	.002*
	전체	2.11	2.26	-2.658	.008**

주 1) P는 유의수준을 나타냄(*P < .01 **P < .05)

2) 1(매우중요하다)~5(전혀 중요하지 않다)

6.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한 문항에서 두 집단 모두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문항 중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8>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공무원 등	어촌주민	t	P
개발관련부처의 단일화	1.94	2.07	-1.998	.046**
개발승인절차 및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2.04	2.12	-1.170	.243
각종 세금감면	2.25	2.11	2.015	.044**
사회기반시설의 적극지원	1.98	2.11	-2.023	.044**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	1.80	2.05	-3.606	.000*
어촌·어항 지정요건 간소화	2.30	2.11	2.624	.009*
환경영향평가제도 감시기구 단일화	2.30	2.51	-2.621	.009*
개발정책의 현실성과 일관성	1.82	2.12	-4.068	.000*
전체	2.05	2.14	-1.906	.057

주 1) P는 유의수준을 나타냄(*P < .01 **P < .05)

2) 1(매우 필요하다)~5(전혀 필요하지 않다)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한 차이분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이 있었다. 유의수준 p<.01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 어촌어항 지정요건 간소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감시기구의 단일화, 개발정책의 현실성과 일관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촌어항의 지정요건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촌주민(2.11)이 공무원 등(2.30) 보다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촌주민이 공무원 등보다 어촌어항지정요건의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수준 p<.05에서는 개발관련부처의 단일화, 각종 세금감면, 사회기반시설의 적극지원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어촌주민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각종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2.25)의 평균이 어촌주민(2.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되어진다.

V. 결 론

어촌어항개발정책에 대한 어촌주민과 관련공무원 등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어촌어항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문제점의 인식에 있어서는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개발부진에 대해서는 어촌주민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개발가능성이 있는 어촌어항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육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어촌어항개발정책의 개발방향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도 지적했듯이 어촌어항개발시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어촌어항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기능부여를 통한 개발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어촌어항개발의 파급효과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어항개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항목 중 어촌주민의 소득창출 기능이 기대

된다는데 대해서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 모두 높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어촌어항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정적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어촌어항개발 시 고려해야할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의 기능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생산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항의 기능에 있어서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어업활동 지원기지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어촌주민의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기지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적 생산기능과 어업 및 수산물 유통기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어촌문화의 전달 및 해양자원의 보전 등 다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어촌어항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의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어촌어항 지정요건의 간소화와 각종 세금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공무원 등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어촌어항개발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정책수립과 집행에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어항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과 어촌주민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어항개발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성귀·김종덕·최성애, “소규모어항 개발 유형 연구 -육지 소규모어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 김종섭, “소규모 어항의 유행화와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5권 제1호, pp.87~108, 2003.
- 배재흠, “관광도입을 위한 어촌 커뮤니티계획 및 설계 -영덕군 노물동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백선혜, “대도시 주변어촌의 기능변화 - 울산시 강동면 정자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부산시, 「수산진흥편람」, 2004.
- 부산시, 「수산해양편람」, 2004.
- 손정식, “21세기 어항어촌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어항어촌연구」, 제1집, pp.63~120, 1999.
- 손정식, “어항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어항어촌연구」, 제2집, pp.1~17, 2000.
- 손정식·오창택, “어항개발수준에 대한 어항관리자들의 인식”,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어항어촌연구」, 제3집, pp.29~ 57, 2001.
- 손정식·오창택, “어항만족과 구전 의도 및 정주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어항어촌연구」, 제4집, pp.27~49, 2002.
- 송경언,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신승식·한광석·윤진숙·이종훈, “국가어항의 GIS/DB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 오창택, “어항만족의 구성차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집단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어항어촌연구」, 제2집, pp.19~56, 2000.
- 오창택·하주룡, “한국 어항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어항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어항어촌연구」, 제1집, pp.121~151, 1999.
- 이재천, “관광어촌의 형성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하현철, “연약해저지반상의 인공어초 침하·매몰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해양수산부, 「어항편람」, 2003.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2002.